

프랜차이즈업계, 사드보복에 노심초사

한국산 이미지 표출 최소화 · 일체의 프로모션도 중단... 반한 감정 고조에 “예의 주시할 수밖에”

중국이 롯데의 사드(THAAD) 부지 제공과 관련해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직격탄’을 맞거나 없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장 중국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부터 중국 내 어느정도 기반을 마련한 업체들까지 ‘한국산’ 이미지 표출을 최소화해 제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중국(75.4%)으로, 2014년 1506개였던 중국 내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수는 2015년 1814개로 20% 이상 늘어났다.

가장 많이 차지한 업종은 외식업(1814개)으로, 미스터피자, 한스델리 등 패스트푸드부터 분죽, 놀부부대찌개&철관구이, 비비큐, 파리바게뜨, 푸레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진출이 활발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사드 배치 부지가 확정되면서 불만을 품은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을 포함한 반한(反韓) 감정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한한령(限韓令) 등 계속되는 규제 강화로, 국내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CF푸드빌의 경우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진출을 가속화한 상황에서 뜻밖의 압축을 만났다.

지난 1월 CF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푸레쥬르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국에 14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베이징, 상하이, 톈진, 웨이하이 등에 7개의 직영 매장과 쓰촨성, 허난성, 산시성, 산둥성 등 10개 지역에는 마스터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CF푸드빌은 총점 1, 2호점을 통해 중



경기불황 속 사행산업 호황

지난해 복권판매액이 3조8000억여 원으로 13년만에 최대 판매액을 기록해 경기불황 속 사행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시민들이 어느 복권판매전문점 앞을 지나고 있다.

국 전역을 공략할 4개 거점을 확보, 오는 2020년까지는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었다.

2004년 9월 중국 상하이에 진출한 SPC그룹 파리바게뜨도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진출초기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품목 구성을 다양화, 고객 만족도를 높여 현재까지 총 16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SPC그룹은 2030년까지 매출 20조원을 달성하고, 전 세계 1만2000개 매장을 보유한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도 세웠지만 해외 사업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 진출 15년 만에 지난해 첫 흑자를 기록했던 MPK그룹의 미스터피자도 영업압박을 견고하고 있다.

지난해만 중국 내 40개의 점포를 새로 출점하며 100호점을 돌파하는 등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 대도시는 물론 주변 소도시까지 점포를 오픈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손꼽히는 유통·부동산 기업과의 합자를 통해 백화점, 쇼핑몰 등에 매장을 오픈하며 현재까지 총 13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아직 중국이나 한국 정부로부터 이탈다할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 고조 등으로 중국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SES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tvN ‘도깨비’ 등 한류드라마의 영향으로 중국 진출 이후 호황기를 누렸던 치킨업계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상하이에 오픈한 한국식 치킨매장에는 3시간 넘게 줄을 서야 하고, 중국

어로 ‘치맥’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는 등 대륙에 불기 시작한 치맥 열풍에 덩달아 매출 호황을 누리던 BBQ, bhc, 교촌치킨, 굽네치킨 등 국내 치킨업체들은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치킨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사드 배치가 확정된 이후 중국 시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모션을 중단했다”며 “최근 같은 상황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반한감정이 고조되면서 관련된 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및 반한 감정 확산으로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3년 이내 질병발생 확률 예측

인공지능 ‘셀비 체크업’ 세브란스 병원 도입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3년 이내 질병발생 확률을 90% 이상 정확히 예측하는 서비스가 개발됐다.

셀바스시는 인공지능 기반 질병 예측 서비스 ‘셀비 체크업(Selvy Checkup)’을 국내 최초로 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런칭했다고 6일 밝혔다.

셀비 체크업은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을 입력하면 폐암, 간암 등 주요 6대암 발병위험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 당뇨, 치매 등 주요 성인병의 3년 이내 발병 확률을 예측해주는 서비스다.

셀비 체크업은 셀바스시와 세브란스 헬스 IT 산업화 지원센터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됐다. 의료계의 최신 임상 분석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실용화에 성공한 첫 사례다.

특히 다년간 축적된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셀바스시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머신러닝 플랫폼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질병발생 확률을 90% 이상 정확히 예측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료분야로 서비스 확산이 기대된다.

셀비 체크업은 기존의 건강검진 기록 보유자라면 체크업 공식 사이트와 iSeveranc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미래의 질병 발생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KISA, 일리시스·KT에 지능형 CCTV 성능인증 부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능형 CCTV 솔루션에 대한 첫 성능인증을 일리시스의 ‘인텔리빅스’와 KT의 ‘기가이즈 영상분석’에 부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능형 CCTV 솔루션은 배회, 침입, 유기, 쓰러짐, 싸움, 방화 여섯가지 특정행위 중 배회와 침입을 필수적으로, 그 외의 행동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선택해 90%이상 정확하게 검출해야 한다.

두 업체의 지능형 CCTV 행위 검출 솔루션은 배회, 침입, 유기 세 가지 분야에서 인증용 영상 DB에 기록된 이상행위를 발생 2초 전부터 이후 10

초 이내에 90% 이상 탐지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인증 절차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KISA는 국내 지능형 CCTV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우수 제품의 보급·확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시했다.

조윤홍 KISA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지능형 CCTV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삶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증 분야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금감원, 16일 자살보험금 백기투항 삼성생명·한화생명 제재수위 결정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뒤늦게 결정한 삼성생명·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연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한화생명·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자연이자 포함) 지급함에 따라 16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한화생명·에 2~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와 최고 경영자(CEO)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생명·한화생명·이 뒤늦게라도 전액 지급을 결정한 만큼 제재 수위는 전전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비수하거나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CEO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뉴시스

‘사드 보복’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전전공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압박이 거세지면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도 좌불안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인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SDI와 LG화학은 이미 중국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공급량이 줄어들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전전공공하고 있다.

중국에서 전기차 제조사는 국가보조금을 받고, 판매상은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구조다. 중국정부는 연초부터 NCM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의 경우, 지역별로 번호판 혹은 보조금 혜택을 없애는 조치로 규제하고 있다. 리튬이온전(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국업체들 보호 조치라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올해에도 보조금 관련 장애물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드 배치로 인해 문제가 더 커질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SDI와 LG화학은

이미 보조금 대상서 제외 ‘문제 더 커질까봐 우려’

공격적 투자와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만 향후 5년간 총 2조원 이상을 투자해 202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LG화학은 202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분야에서 매출 7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연이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뉴시스

전라북도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